

신시내티 농락한 느린 커브... 완벽한 완급조절 내세운 류현진

시속 100km대 느린 커브로 신시내티 타자들 타이밍 뺏어
강속구 앞세운 신시내티 그린, 3이닝 9실점하고 조기 강판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속 100km대의 느린 커브를 앞세워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이끌었다.
완벽한 완급조절을 내세운 류현진은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직구를 뿌린 신시내티 레즈 선발 헌터 그린에 완벽한 우위를 점했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7탈삼진 1볼넷 2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9-2로 앞선 6회말 교체된 류현진은 토론토가 10-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2승째(1패)를 수확했다. MLB 개인 통산 77승째다.
야수 실책 속에 실점했지만, 자책점을 기록하지 않은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2.57에서 1.89로 끌어내렸다.
지난 14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5이닝 2실점 비자책점을 기록하고 팔꿈치 부상 복귀 후 첫 승리를 신고한 류현진은 2경기 연속 비자책 경기를 펼치며 2연승에 성공했다.
컵스전에서 자신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빛을 발했다면 이날은 느린 커브가 돋보였다.

류현진은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89.6마일(약 144.2km), 평균 시속 87.4마일(약 140.7km)에 그쳤으나 커브를 활용한 완벽한 완급조절과 제구력을 앞세워 신시내티 타자들을 농락했다.
시속 100km대까지 떨어진 느린 커브에 신시내티 타자들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신시내티 타자들이 바깥쪽 체인지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자 류현진은 커브를 결정구로 꺼내들었다. 류현진은 이날 체인지업(18개)과 커브(16개)를 비슷한 비율로 구사했다.
83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부상 복귀 후 최다인 7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 7개 이상의 삼진을 잡은 것은 2021년 10월 4일 볼티모어전에서 7개를 잡은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7개의 삼진 중에서 커브를 결정구로 삼은 것이 3개였다. 2개의 삼진은 직구의 칼날 제구를 앞세웠고, 체인지업과 커터로 각각 1개씩의 삼진을 잡았다.
류현진은 2회말 무사 1루 상황에서 조이 보토를 상대로 직구와 커터, 커브를 차례로 던져

3구 삼진으로 슈아냈다. 바깥쪽으로 휘는 시속 65.5마일(약 105.5km)의 낙차 큰 커브에 보토의 방망이가 헛돌았다.
3회말 1사 1루에서 '괴물 신인' 엘리 데 라 크루스를 삼진으로 처리할 때도 커브가 주효했다. 직구와 체인지업을 번갈아 던지던 류현진은 몸쪽 낮은 곳으로 휘는 커브를 던져 데 라 크루스의 헛스윙을 유도했다.
류현진은 5회말 체인지업이 모두 안타로 연결돼 무사 1, 2루의 위기에 놓이자 다시 커브를 적극 활용했다.
1사 1, 2루에서 매클레인에게 몸쪽 높은 커브를 뿌려 포수 파울 플라이를 이끌어냈다.
이어 데 라 크루스를 상대로는 체인지업과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는 낙차 큰 커브를 던졌다. 타이밍을 뺏긴 데 라 크루스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3구 삼진을 당했다.
MLB닷컴 통계 사이트인 베이스볼서번트에 따르면 류현진의 이날 커브 구속은 최저 65.5마일, 최고 71.4마일(약 114.9km)이었다. 평균 구속은 시속 68.8마일(약 110.7km)이었다.
류현진의 이날 가장 빠른 공과 가장 느린 공의 구속 차는 시속 약 39km에 달했다.
류현진은 완급조절로 신시내티 타자들을 요리하면서 강속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신시내티 선발 그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7탈삼진 1볼넷 2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토론토가 10-3으로 승리하면서 류현진은 시즌 2승째(1패)를 따냈다.
면서 류현진의 완급조절 능력은 더욱 도드라졌다.
그린은 이날 최고 시속 100.3마일(약 161.4km), 평균 시속 98.4마일(약 158.4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뿌렸다. 최고 시속만 따지면 류현진보다 구속이 시속 17km 정도 빨랐다.
하지만 그린은 경기 초반부터 난타를 당했다. 3이닝 동안 홈런 5방을 포함해 10개의 안타를 얻어맞고 9실점(8자책점)하며 무너졌다.
뉴시스

“류현진 폼 미쳤다”...호투 선보인 류현진에 찬사 쏟아져

현지 기자 “14개월 이상 재활한 류현진의 제구 놀라워”

2경기 연속 비자책점 투구를 선보인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소속팀과 현지 매체들이 찬사를 쏟아냈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7탈삼진 1볼넷 2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9-2로 앞선 6회말 교체된 류현진은 토론토가 10-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2승째(1패)를 수확했다. MLB 개인 통산 77승째다.

경기 후 토론토 구단은 공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류현진의 투구를 한껏 추켜세웠다.
류현진의 투구 사진과 탈삼진 영상을 함께 올리면서 류현진의 별명인 '몬스터'와 '마스터 클래스'를 함께 적었다.
이어 한글로 “류현진 폼 미쳤다”라면서 태극기 이모티콘을 붙였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은 류현진은 이날 2일 1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적지 않은 나이에 세 번째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아 부활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류현진은 뛰어난 완급조절 능력을 앞세워 부상 이전과 같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복귀전이었던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는 5이닝 4실점하고 패전 투수가 됐지만, 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서 타구에 맞는 불운을 만나기 전까지 4이닝 노히트 행진을 펼쳤다.
지난 14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5이닝 2실점 비자책점을 기록하고 팔꿈치 부상 복귀 후 첫 승리를 신고한 류현진은 2경기 연속 비자책점 행진을 펼치며 2연승에 성공했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57에서 1.89

로 내려갔다.
캐나다 지역지 토론토 스타의 칼럼니스트 마이크 윌너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류현진이 또다시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다. 14이닝 연속 비자책점 행진을 이어갔다”며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14개월 이상 재활한 선수가 이런 좋은 제구력을 선보이는 것이 무척 놀랍다. 대부분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선수들은 제구력이 가장 늦게 돌아온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언론 스포츠넷의 벤 니컬슨 스미스 기자는 “류현진이 다시 한 번 효과적인 투구를 펼치며 시즌 평균자책점을 1.89로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니컬슨 스미스 기자는 이날 경기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통해서도 “류현진이 팔꿈치 수술 이후 가장 나은 투구를 펼쳤다”고 전했다.
MLB닷컴은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류현진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경기였다”며 “류현진은 대부분의 투수들보다 강하거나 탄성을 내지 못할만한 공을 던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현진은 상대 타자의 스윙과 생각을 읽어내기에 젊고 공격적인 타자들에게 위험한 투수”라며 “엘리 데 라 크루스와 승부가 완벽한 예시다. 류현진은 크루스를 상대로 시속 66마일, 67마일짜리 커브를 던져 삼진을 잡았다”고 주목했다.
AP통신은 “4년 8000만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류현진이 5이닝 4피안타 7탈삼진 1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2022년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이날 2일여야 복귀했다”고 소개했다.

높이뛰기 이상혁, 세계선수권 예선 가뿐히 통과... 23일 결선 도전



이상혁이 2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을 마친 후 세리머니하고 있다. 이상혁은 2m28을 넘어 예선 4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높이뛰기 이상혁이 2023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넘으

며 4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상혁은 2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14, 2m18, 2m22를 차례로 1차 시기를 통과했다.
2m25 1차 시점에서 바에 걸려 실패한 이상혁은 2차 시점에서 2m25를 넘었다. 2m28은 1차 시기에 성공하며 결선에 진출했다.
이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결선에 임하겠다. 개인 최고 기록(2m36) 경신과 세계선수권 대회 2회 연속 메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상혁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3일 오전 2시58분에 펼쳐지는 결선 경기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이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최초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하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회 대회 연속 메달을 기록하게 된다.

조코비치, 한달만에 알카라스에 설욕...신시내티오픈 우승

노박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에 한 달 만에 설욕전을 펼치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서던 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3시간49분에 걸친 혈투 끝에 2-1(5-7 7-6(9-7) 7-6(7-4))로 꺾었다.
지난달 윌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에 석패했던 조코비치는 한 달 만에 성사된

대결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조코비치와 알카라스는 상대전적에서 2승 2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됐다.
둘은 메이저대회에서 두 차례, 메이저대회 바로 아래 등급으로 1년에 9차례 열리는 ATP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에서 두 번 맞붙었는데 한 번씩 승리를 나누기졌다.
조코비치와 알카라스는 오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 오픈에서 다시 한 번 우승 경쟁을 벌인다.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서던 오픈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2-1(5-7 7-6(9-7) 7-6(7-4))로 꺾고 우승했다.



임성재가 19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의 올림피아필즈 CC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3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임성재는 중간 합계 6언더파 204타 공동 11위를 기록했다.

임성재 “투어 챔피언십, 작년 준우승 코스서 치러 기대” “BMW 챔피언십서 드라이버샷·아이언샷 너무 잘됐다”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5년 연속 도전장을 던졌다.
임성재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7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 출전하기 전 페덱스컵 랭킹 28위였던 임성재는 17위로 순위를 더 끌어올리며 투어 챔피언십을 확정했다.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은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다. 또 투어 챔피언십 출전자는 내년 마스터스 등 메이저대회와 특급 대회 출전 자격도 주어진다.
임성재는 “이번 주에 드라이버 정확도가 좋

아서 티샷이 너무 잘됐다. 이 코스 경우 러프가 길어서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가 되는데 4일 동안 드라이버 샷과 아이언 샷이 너무 잘돼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날 컨디션에 대해 “4일 동안 컨디션은 다 비슷했다. 이번 주는 퍼트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중간 거리와 짧은 거리 퍼트를 몇 개 놓친 것이 있어서 바디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성재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선전을 다졌었다. 그는 “페덱스컵 랭킹 17위여서 2언더파의 점수를 받고 시작한다. 작년에도 이스트레이크에서 2위라는 성적을 내서 좋은 기억이 많다. 그래서 다음주 경기가 기대된다”고 각오를 다졌다.